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2년 11월호

통권 제 223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교우소식

♣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 황승우 교우-호주국제조각 심포지엄 1위 수상
미국 메인대학 개인 전시회
- 이기현·유은선부부 - 득남
- 심승연 교우 - 새가족 등록(종로구 계동)
- 조광일·이영민 - 결혼

♥ 감사합니다.

- 윤장섭집사.신경희권사 - 점심식사제공
- 조대식집사.최서섭권사 - 점심식사제공

♣ 기도를 해주세요.

- 별세 - 고 김필순 성도(유해옥집사 모친)
고 이강재 성도(김영자a권사 부군)
고 조연용 권사(김재곤권사 모친)
고 김진국 집사(박경자권사 부군)
고 최충배 성도(최성진교우 부친)
고 오도광 집사(이주영장로 부군)

안동가족축제

10월은 안동교회 가족축제의 달이었다. 소허당에서는 전문작가 이승현, 임승현 화가의 전시회가 각각 6일-14일, 20일-28일까지 있었다. 소허당 옆 쉼터에서는 13일 오후3시, 가수 정예원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거행했다. 14일(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의 맞이하여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고, 식사 후 오후1:30에는 가수 오은을 모시고 윤보선 교

택에서 고택음악회를 가졌다. 또한 본당 뒷 벽면과 지하부터 2층까지 계단 벽면에는 교우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진작품을 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동가족축제의 절정을 장식했던 태풍피해 이웃돕기를 위한 청계천걷기대회는 23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일(주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시편의 감사시 쓰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100:5)”,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 선물이며, 그 생명이 연장되어 오늘도 아침을 맞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고,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내 귀로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워졌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만 생겨난다. 욕심의 안경을 낀 눈에는 부족한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끼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번 것, 장사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자녀가 잘 커준 것, 등등 다 감사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감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감사의 근본이다. (「평생 감사」 책에서 인용)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영아부는 10월 7일부터 28일 까지 “시편의 감사 시 8, 116, 138, 136, 100 쓰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아부 가족들은 열심히 참여하였고, 마지막 발표회 때 감사의 나눔은 너무나 풍성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쓸 때 이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시편의 감사 시 쓰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유치부 가을소식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가을하늘이죠. 하지만 정작 살면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적습니다. 그 하늘은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분을 좋게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해주시는 소중한 선물로서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유치부에서는 예배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실현할 장소는 바로! 유치부실로 쓰고 있는 안동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그 놀이터에서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놀이터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향기를 내뿜는 곳에 가니 예쁜 국화꽃이 향기를 뿜어주어서 꿀벌들이 꽃 주위로 모여들고 있어요. 노란 옷을 껴입은 은행나무나, 울긋불긋 단갈색, 붉은색을 입은 단풍나무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디. 사시사철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소나무. 그리고 고운 모래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었습니다. 평소 예배 때와 같이 유치부실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말을 해주었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게 어떨까 하고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놀이터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어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느껴보도록 인도해주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꽃과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있

는 곳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자세히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선물이자 동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들을 것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 흰 종이와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놀이터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마다 보고 느낀 것이 다르듯 흰 종이에 표현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구름과 하늘을 그리는 아이, 땅과 풀을 그리는 아이, 종이에 한가득 꽃을 알록달록 그리는 아이, 큰 나무와 묵직한 가지를 그리는 아이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는 눈은 달랐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들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모두가 신나게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아이들은 때론 우리들의 교사가 됩니다. 순수한 눈망울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바라보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묻지 않은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소년부 소식을 알립니다.

9월 한 달과 10월 첫 주까지는 유소년부 분리에 배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부서의 제한적인 자원 안에서 유년부와 소년부 두 부서로 분리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디. 9월 한 달은 1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년부가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1부 예배를, 유년부가 11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년부는 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한옥에서 공과공부를 하였고, 소년부의 예배가 마치면 소년부와 교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년부는 예배를 마치고 유년부가 공과공부를 하였던 한옥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공과공부를 하는 식으로 예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첫 주에는 유년부는 한옥에서 교육 목사님을 모시고, 소년부 유소년부실에서 담당 교역자의 인도로 각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년부는 한옥에서 예배부터 공과공부까지, 소년부는 유소년부실에서 예배부터 공과공부까지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직 선부른 판단을 하기엔 이르지만 유년부 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1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각각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도되었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유소년부의 예배와 부서의 정책들이 보다 더 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배움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생각하실 때 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셋째 주에는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려 온 날입니다. 달란트 잔치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모아 온 달란트로 아이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대했을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게임 센터, 쇼핑센터, 먹거리 장터까지 다양한 코너를 열어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란트를 내고 알까기, 양궁, 두더지 잡기, 공기, 병뚜껑 튀기기, 림보, 투호 등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여 각 게임의 미션을 클리어 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임을 클리어한 아이들에게 클리어 한 수 만큼 추후에 먹거리 음식을 뽑을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동안 열심히 게임 미션을 클리어 한 아이들은 뽑기를 통해 북북북으로 음식 메뉴를 선정하였는데, 어떤 친구들은 메뉴를 골고루 뽑은 반면 어떤 친구들은 피자만 네 조각, 떡볶이만 다섯 컵, 치킨만 세 조각, 과자만 네 개씩 뽑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음식 메뉴가 골고루 뽑히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은 서로 뽑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선생님들이 정한 뽑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행해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특하지요?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쪽에서는 쇼핑센터를 열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에 맞게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학용품, 펜시용품, 장난감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여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쇼핑센터에서는 개인당 2개 정도씩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아이들이 무척 아쉬워하여 다음 번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쇼핑을 즐길 수 있게끔 준비하려 합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해 성실하게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원칙과 인생의 교훈을 알려 주고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원

칙과 말씀을 삶 속에 담아내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토요문화 교실은 10월 27일 토요일을 끝으로 은혜 가운데 종강하였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소그룹모임

생명이 탄생하고 기도로써 한해를 준비하는 봄이 지나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름 그리고 이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흐름 속에서 청년의 소그룹 모임은 여름 한 풀 꺾이는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아직 모임이 약한 청년들을 모임을 강화하고자 김유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뜻을 보면 소그룹은 규모가 작은 집단 그리고 모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했던 것이 소그룹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과 또 소그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나온 리더가 박장환, 제본승, 황수진, 박유진, 정지혜 총 5명의 리더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한 것은 소그룹의 목표로 성경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그룹을 진행한지도 약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희 청년의 모습은 어쩌면 예전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겨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량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보호하고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올해 소그룹 모임이 내년 2013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청년이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의 시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로 힘써주고 수고하는 박장환, 제본승, 황수진, 박유진, 정지혜 청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 :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김민정 교우

“아! 배고파!” 배가 주리면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매일 성경읽기를 바쁨 속에 잊을 때가 있으면 자기 전에 꼭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아! 말씀고파!” 이렇게 안달이 나서 배고플 때처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손이 떨리거나 기력이 폭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육체가 이상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상신호를 보내는데 참 이상하리 만큼 그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육체의 상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인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니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다.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는 지식으로의 성경으로 접근했었다. (물론 나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성경을 접하여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치부하거나 그저 믿는 사람들이 기술한 그들만의 책이라고 생각했다. 반신반의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기 시작했었고 오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밤낮을 읽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은혜였다. 지적욕구가 해결되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 나의 가슴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하며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했을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같다. 두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말씀의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된다. 절대 기도할 수 없고 날 수도 없다.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저 맹목적으로 자기만의 해석이나 남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읽어서는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씀이지만 그날그날에는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의 큰 줄기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의 제시이고 그 길을 가다 만나는 문제들과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그날그날 공급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런 하루하루의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 그저 내 머릿속으로 옛날에 봤었던 말씀에 어찌어찌했는지 미루어 짐작하여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기 쉽다.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

을 먹고 그때의 상황에 맞는 처신과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볼 시간이 없으니 오늘 제게 딱 한구절만 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딱 펼치니 ‘돌로 쳐 죽이라’ 당황한 그 사람은 “에이~ 하나님 장난하지 마시구요. 이번에 제대로 부탁 드릴게요” 하고 성경책을 아무곳이나 펼치니 ‘본대로 행하라’라고 되어있었다. 그 사람은 크게 당황하여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마지막입니다”하고 펼치니 ‘지금 당장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장 나가서 본대로 돌로 쳐 죽였어야 했던 것인가? 황당하고 그저 웃긴 이야기지만 웃는 웃음의 뒷 끝이 씩씩하다. 어쩌면 나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앞뒤 문맥을 읽고 그 문맥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주시는 뜻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그저 해치워 버려야 하는 일과 정도로 생각하면 위의 이야기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것은 활자 하나하나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그 속뜻을 느끼고 알아차려서 우리를 다잡아 나아가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간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의 제목처럼 ‘인생사용설명서’라고 표현을 한다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신 것들을 하면서 산다면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선물로 주실 것인지 모두 다 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성경책은 ‘인생사용 설명서 및 하나님과의 관계 설명서’가 될 수도 있겠다.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은혜로웠고 또 다음번에는 어려웠고 그 다음번에는 겁이 났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든지 알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또 일어서서 말씀을 손에 붙들고 나아간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11월 셋째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런 전통은 미국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우리나라의 고유명절 한가위도 있고,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가위와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 사이 걸쳐 있다. 금년은 9월 30일로 한가위와 초막절이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해였다. 가을에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목의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감사절기인 초막절은 명실공히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다. 한 해의 수확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거둔 곡식과 과일의 넉넉함을 바라보며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에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끝내고 가을걷이를 마친 후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기뻐해야 할 바로 그 때, 풍요의 정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먼 옛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생활 할 때 장막을 짓고 지내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였다. 또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추수의 기쁨도 주셨음을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했던 감사는 옛 삶의 참담함과 애굽의 노예살이를 기억해내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감사였다. 그저 단순하게 오늘의 풍요로움에서 찾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

었다. 풍요로움에서 찾는 감사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할 수 있고 더 누리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6.25전쟁, 그 후 1960년대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런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오늘의 풍요로움에 갇혀서 상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과거 역사의 초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자.

정치종교로 만들지 말자

세상이 온통 12월 말에 치르는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도 바쁘게 뛰어 다니고 있다. 교회에 대한 냉소를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교를 통해 특정한 정치세력을 추종하는 듯한 내용을 전달하는 일도 종종 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며 특정한 정치세력을 떠받드는 데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벗어나 정치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는 인간 실존의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기도 한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문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투표나 여론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국가사회의 궁극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의 정치적 식견과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유권자로 참여하거나 정부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견을 표출해야 할 권리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가르치는 것에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종교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기는 커녕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말들을 옮겨선 안 될 것이다. 정파나 이해관계나 자신의 당파를 따라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처럼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 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어야 한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 선교사가 말하는 독도문제

지난 8월10일,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하여 일본영도가 들끓었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일본 국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보수 정치가들이 정치적 전략으로 가끔 양념처럼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내뱉는 말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한일 양국의 영토 분쟁 문제는 나오는 거리가 먼 일로만 여겨왔는데,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언론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우익 인사를 초청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

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일본의 모든 국민이 이제는 독도 문제를 알게 되었고, 한국이 다케시마를 무단으로 점령했다고 믿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영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면 당연히 일본이 승소한다고 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제 모두가 한국이 불법으로 일본영토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일본의 보수 정권은 이제 주변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 증강과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작전에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큰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다.

한류열풍으로 국영방송 민영방송 할 것 없이 한류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요즘은 뜸하다. 이미 방영하고 있는 것은 조기 종영을 서두르고 있고, 방영계획의 드라마는 계약취소 되었다. 한류 열풍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동경 신주쿠, 오쿠보에는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한국으로 가는 일본 여행객도 줄어들고, 일본으로 오는 한국 여행객도 줄어들고 있다. 양국의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엄청난 손해는 물론, 88올림픽 이후 좋아져 왔던 한일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고, 계속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 하더라도, 이미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가끔씩 뭐라 하더라도 큰 분쟁 없이 그렇게 세월이 50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국제법상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나라)의 것이 된다고 얼마전 어느 일본 방송에서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은 떠들 필요가 없다. 표면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본다.

영토문제는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밀고 당기면 되는 것이고, 표면화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표면화 되면 감정적인 대립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을 일이 없다.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당연히 한국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에서도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독립운동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토문제는 국가와 정치인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총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생명)이 핵 방사능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을 통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반핵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선교사가 협력하고 있는 일본그리스도교단의 각 교구(노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교훈삼아 탈 원자력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인 것으로, 사회부가 아닌 선교부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WCC부산 총회를 유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에큐메니칼적 선교신학을 지향하는 우리 총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헌금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은 거류민이라”(레25:23)고 하였다. 독도는 하나님 땅이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수능기도회 신앙성숙의 기회로

199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대학수능고사'는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별 고사성적과 함께 대학입학자격의 중요한 평가자료가 된다. 무엇보다 대학수능고사는 사실상 수험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뚜렷하고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학수능고사일에 맞추어서 길게는 1백일에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이르는 소위 '수능 기도회'와 같은 목회적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기도회는 세속화와 과중한 학업의 부담에 떠밀려 다니느라 신앙적 성숙과 인격적 도야의 기회가 빈약한 우리 학생들의 현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내어 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

여 애타게 기도하는 학부모들과의 일체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공동체의 존재감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능기도회라는 것이 기도만 하면 자신의 평소의 실력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는 '요행의 기적'을 바라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실수없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게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수능시험이 수능 당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험일이 끝나면 수능기도회도 만료되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해진 수험일의 물리적 조건이 '수능만 끝나면'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조건과 포개어져서 수능일이 지나는 순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상태도 무장해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수능은 학생들의 긴 인생의 과정에 겪을 여러 도전들과 어려움들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미리 정해진 시각에 맞추어 조건화된 헤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과 정신의 '아노미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능 직후의 성적에 대한 개인적 평가들은 주관성의 여지가 많아서 후에 희망과 실망이 역전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무장해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때 음주와 흡연 같은 나쁜 습관들을 접하게 되는 등 탈선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상태가 풀어져 자유분방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이나 '성경공부', '토론'과 같은 형태로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노출되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하니 극히 조심하고 경계할 일이다.

십일조

오래 전 미국 유학 도중 이민교회를 잠시 목회할 때의 일이다. 교인 가운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사는 중년의 집사님이 계셨다. 그 집사님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아주 모범적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이라 일컫는 올림픽가에서 제법 큼직한 식당을 운영할 만큼 사업에도 재주가 있는 분이셨다.

어느 날 그 맥에 심방을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하는 도중 집사님은 어렵게 말문을 여셨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집사님이 목사에게 질문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 보세요." 다시 집사님은 머리를 만지며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다.

"목사님, 신약성경에는 '십일조 하라'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십일조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목회 경험이 적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십일조에 관한 질문은 당황 그 자체였다. 뭐하고 대답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 때 나는 얼른 기도했다. "하나님, 이상한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빨리 답을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때 불현듯이 머리에 떠오르는 답이 있었다. "집사님, 신약성경에는 '십일조 하라'는 명령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이제 십일조 그만 하라'는 말은 있습니까?" "그 말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 말이 없으면 십일조를 계속합시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며, 율법으로 미완성된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신약의 의미를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출애굽은 인류의 구원의 상징인데 율법을 출애굽 보다 먼저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으므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해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하신 말씀은 십일조에 대한 명령어는 아니지만 십일조를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하였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주일부터 집사님은 정확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총회 · 연합회 · 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pckworld.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기

2012년 11월호 · 통권 제 223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중 혁

김 유 태

발행일 : 2012년 11월 9일